



2014 SBS대기획

아름다운 당신, 다시 뜨겁게!

지금 당신은 힘들 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빈틈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맙시다.
 나는 본래 '아름다운 사람'이며 '괜찮은 사람'이며
 '뜨거운 에너지를 품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의 꿈을 놓지 않습니다.
 냉소와 패배주의를 던지고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자신을 믿어봅시다.
 러시아 소치에서,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 인천에서 분출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 우리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싸움판이 아닌, 흥겨운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아름다운 당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이 다시 뜨겁게 살아가는 2014년 대한민국을
 SBS가 함께 합니다.

2014 SBS 부문별 대기획

1. 한국인의 에너지로 세계를 뜨겁게!
- 올림픽채널 SBS | 월드컵채널 SBS
2. 행복한 공동체를 향한 소통과 참여
- 6.4 지방선거 | 보도 연중기획
3. 역사에 가려진 인간과 권력의 내면을 파헤친다!
- SBS 명품 사극
4. 아름다운 삶을 함께 찾아가는 길
- SBS 명품 다큐멘터리
5. 디지털과 행복을 연결하는 혁신적 지혜를 찾아서
- SDF 2014
6. 한국의 열, 세계의 보물
- 문화예술이 숨쉬는 SBS



1. 한국인의 에너지로 세계를 뜨겁게! - 올림픽채널 SBS / 월드컵채널 SBS

1) "열정의 소치, 꿈꾸는 평창" 2014 소치동계올림픽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의 열정과 감동을 최고의 올림픽 방송으로 전달한 대한민국 올림픽채널 SBS!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당당한 개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더하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에너지를 더 아름답게, 더 뜨겁게, 더 감동적으로 전해드립니다.

SBS 소치 2014 특집 프로그램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뜨거운 날의 도전> 모닝와이드 <모스크바에서 소치>, <여기는 소치> 선수단 환영 특집 <이제는 평창이다> 특집 인물다큐 <태극의 꿈을 그리다>

2)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에 열광하는 한국인은 배성재와 차범근의 목소리로, 월드컵채널 SBS를 통해 월드컵을 즐깁니다! 축구와 심바,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펼쳐지는 축구의 대제전! 한국인의 에너지가 다시 한 번 지구 반대편을 뒤흔드는 기적의 감동과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세계인의 순수한 열정을 대한민국 월드컵채널 SBS가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SBS 브라질월드컵 특집 프로그램 <힐링캠프> '2014 브라질월드컵과 함께 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정글의 법칙 in 브라질 D-100 특집 다큐 <이제는 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모닝와이드> '신비의 땅 브라질 대장정', '현지 응원 프로젝트'

3)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3대 스포츠 바이벤트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12년만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아시아인의 대축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국의 뿌듯한 자신감으로 SBS가 함께 하겠습니다.

2. 행복한 공동체를 향한 소통과 참여 - 6.4 지방선거 / 보도 연중기획

1) 6.4 지방선거 개표방송 <2014 국민의 선택>

참신하고 파격적인 그래픽, 면밀한 분석, 올바른 시각으로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SBS 국민의 선택>이 2014년 6월 4일(수) 지방선거로 다시 한 번 개표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선거가 행복한 공동체를 향한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SBS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합니다.

2) 보도 연중기획 <2014 함께 뛰는 코리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거세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2014년 SBS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확인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미래 지향적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역사에 가려진 인간과 권력의 내면을 파헤친다! - SBS 명품 사극

<SBS 대기화 비밀의 문> 24부작, 윤선주 극본 / 김형식 연출

조선 왕실에서 피어난 공화주의의 꽃, 사도세자 이 선. 2014 역사 전쟁의 시대, 왜곡과 절망의 역사를 넘어 진실과 희망의 역사로 부활한다!

4. 아름다운 삶을 함께 찾아가는 길 - SBS 명품 다큐멘터리

1) <부모 vs 학부모> 신년특집 SBS스페셜 3부작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갈등을 주제로 하여,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부모라는 내용을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

2) <달과 바다>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달이 차고 기운다, 바다 속 생명이 살고 죽는다. 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다, 그 주기에 맞춰온 인간의 삶, 그리고 바다 생물들의 신비한 모습을 담은 고품격 다큐멘터리

3) <유홍준과 친구들의 일본역사기행> 특집 SBS스페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와 함께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찾아 떠나는 문화 기행 다큐멘터리. 한일 간의 뿌리깊은 감정 대립을 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균형을 찾기 위한 동행

5. 디지털과 행복을 연결하는 혁신적 지혜를 찾아서 - SDF 2014

Innovative Wisdom: Technology for the common good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정보 불평등 우려가 심화되고 소통은 예기치 못한 형태로 단절되는 등 우리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얽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혁신적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14 SDF는 디지털 기술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해 '기술에서 어떻게 공공선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6. 한국의 열, 세계의 보물 - 문화예술이 숨쉬는 SBS

SBS - 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사업

2014년 SBS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주목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오롯이 보존하는 데 힘써온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함께 SBS의 다양한 매체와 특집 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혼이 담긴 우수한 예술이 세계의 보물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 간송문화전 |

- 간송 전형필 선생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과정을 소개
- 간송이 모으고 보호해온 문화재들의 보고인 보화각이 소장하고 있는 빼어난 문화재의 정수 80여점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함

2014년 SBS 보도본부의 혁신 다짐

'대한민국 뉴스 리더' 슬로건 채택, 보다 새로운 뉴스를 위한 네 가지 약속

SBS는 올해 새로운 뉴스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뉴스 리더'를 채택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엄선해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실을 넘어 진실과 의미를 추구하는 심층보도를 통해 시청자에게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1등 뉴스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보도본부는 3개년 뉴스 발전계획인 THE 2525 BEST NEWS PLAN을 본격 가동한다. Product-People-Process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혁신체인'을 구축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명품 뉴스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2014년, 달라지는 SBS 보도

1) 뉴스 비주얼 혁신

SBS 뉴스 전체에 대한 비주얼 통합과 개선 작업을 벌여 1/4분기 안에 세트와 CG, 인포그래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SBS만의 새로운 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 4대 빅 이벤트 성공적 수행

4대 빅 이벤트가 있는 올해를 1등 뉴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스포츠 채널 SBS", "선거방송은 SBS"라는 공식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올림픽의 문화' 같은 차별화된 기획으로 스포츠 콘텐츠 트렌드를 주도하고, 인포테인먼트적 요소를 강화한 새 개념 선거방송으로 볼거리를 요구하는 20~30대 젊은 층과 정확성·신뢰성을 요구하는 40대 이상 시청 층의 시선을 함께 사로잡을 계획이다.

3) 심층 보도 강화

'1' 30" 위주의 단순 리포트 개수를 줄이는 대신 이슈 중심의 심층보도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국방·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기자를 집중 양성하고 데이터 저널리즘과 탐사 보도 분야를 강화한다.

4) N-SCREEN 선도

모바일 뉴스 수요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SNS 서비스 확충과 포털 등 플랫폼 제휴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텍스트와 영상, CG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크로스미디어 기사를 개발해 상반기 중 시리즈 형태로 게재할 계획이다.

부모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교육현실 <신년특집 SBS스페셜 - 부모 vs 학부모>(3부작)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아 온 SBS 다큐멘터리가 2014년 한계에 달한 한국의 입시 경쟁을 심층 분석한다. 1월 5일(월)~19일(일)까지 매주 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신년특집 SBS스페셜 - 부모 vs 학부모>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한국 사회와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심도 있게 취재하는 한편, 이러한 교육 현실을

비꿀 수 있는 부모의 변화를 가져올 실마리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부 '공든 탑이 무너진다'(1월 5일)는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자살이나 살인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 강압적인 사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2부 '기적의 카페'(1월 12일)는 사교육 일변지 대치동에서 시도하는 6개월의 부모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루는 놀라운 변화를 전한다. 3부 '부모의 자격'(1월 19일)은 미국과 핀란드 현지 취재로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교육 내용과 부모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일부 지역 교육청의 혁신교육 성과를 보여주어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교육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오 마이 베이비> 2014년 1월 13일 방송



지난 2013년 추석 따뜻한 가족 예능으로 인기를 구가한 <오 마이 베이비>가 한국형 패밀리 리얼리티 쇼! <오 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로 업그레이드되어 재탄생한다. 오는 1월 13일(월) 첫 방송 되는 <오마베>는

가족 전체를 주인공으로 하는 본격 패밀리 리얼리티 쇼, 미국발 리얼리티 쇼의 흥행 열풍에 따른 관찰 프로그램은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본격 패밀리 리

얼리티 쇼는 국내에서 <오마베>가 처음이다. 각기 성격도 개성도 사연도 다른 3대의 요절복통 리얼 라이프를 담게 될 <오마베>의 세 주인공은 '툼현식'과 '제리주환'으로 시청자의 배꼽을 앗아갈 임현식 가족,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전직 아이돌 멤버 이은 가족, 그리고 아이돌 그룹 '엠블랙' 미르와 여배우 고은아의 6세 조카 하진이 가족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개성 만발한 세 가족의 기상천외하고 유쾌한 사생활은 월요일 밤 8시 55분 SBS <오 마이 베이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새로운 모습으로 아침을 여는 <모닝와이드> 1-2부 정미선 아나운서, 새 진행자로



발빠른 뉴스와 다양한 정보로 활기찬 아침을 열어 온 <모닝와이드> 1-2부가 1월 1일(수)부터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시청자와 함께 하고 있다. 2011년 10월 10일부터 2년간 안정적이면서 생동감 있는 진행으로 <모닝와이드>를 지켜온 이윤아 아나운서 후임으로 정미선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프로그램 로고에도 변화를 주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계차나 LTE로 그 날의 주요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하여서 현장성을 강화하고, 안현모 기자의 '마켓 & 트렌드' 코너는 매주 월요일 국내외 경제의 큰 흐름을 짚어줄 예정이다. 또 수요일에는 소비자 경제 정보를 강화하고, 금요일에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한다.

<SBS 나이트라인> 보도본부 배재학 기자, 새로운 진행



새해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제의 인물을 스튜디오로 초청하는 0시의 인터뷰, '뉴스 속으로' 코너를 통해 시청자와 공감하는 뉴스를 만들어 간다.

2013년 SBS의 화려한 피날레, 올해의 도약을 예고하다 <연기대상> <가요대전> <연예대상>

<2013 SBS 연기대상> 국내방송사상 최초로 전 세계 SNS생중계



201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화) 시청자와 함께 한 <2013 SBS 연기대상>은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TV와 SNS를 통해 전 세계 동시 생중계되어 글로벌 축제의 장을 이끌었다. SBS는 <2013 SBS 연기대상>을 TV 뿐만 아니라 공식유튜브(SBSNOW)를 통해 생중계했다. 여기에

SNS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기투표와 네티즌들이 방송을 보면서 SNS를 하는 뉴트렌드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외 시청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무려 145개국에서 시청하였다. 또한 타방송사의 시상식과 달리 공동수상이 없었고, 지난 20년간 방송 3사에서 수상을 한 적이 없었던 아침드라마에 트로피를 안겨주는 등, 차별화되고 신뢰를 높이는 진행으로 호평을 얻으며 1부 시청률 11.1%, 2부 13%를 기록해, 같은 날 방송된 KBS 연기대상 2부 10.4%와 30일(월) 방송된 MBC 연기대상 2부 12.5%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을 브라운관으로 끌어모았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개최된 <2013 SBS 연기대상>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보영이 대상을 수상하며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2013 SBS 가요대전> 가요계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음악프로젝트로 호응

2013년 12월 29일(일) 화려한 막을 연 <2013 SBS 가요대전>은 'Music Makes Miracles'(음악은 기적을 만든다)는 콘셉트로 4시간 동안 총 34팀,



120명이 넘는 가수들을 한 데 모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FRIENDSHIP Project 'You are a Miracle'이라는 콘셉트로 선후배 가수들의 콜라보레이션 등 개성 있는 무대들을 차례로 선보임은 물론, 뮤직 드라마와 특별 무대를 마련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음원 수익 전액을 기부한 사회공헌 음악 프로젝트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2PM 우영과 에이핑크 나은, 샤이니 태민, 걸스데이 민아는 SBS 인기 드라마 <주군의 태양>과 <상속자들>을 콜라보한 뮤직 드라마를 통해 음원 'You are a Miracle'의 탄생 과정을 열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13 SBS 연예대상>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볼거리 제공



2013년 12월 30일(월)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2013 SBS 연예대상>은 박준규, 김종민, 광희가 EXO와 함께 축하공연을 펼쳤고, <자기야 백년손님>에 출연하는 사위들의 깜짝 무대와 <정글의 법칙 in 마이크로네시아>의 오종혁, 예지원의 뮤지컬 공연,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어린이 출연자들이 크레용팝과 뽀빠뽀를 선보이는 등 SBS 예능 프로그램의 역량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시청자를 사로잡았으며,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이 대상을 수상했다.

겨울밤 별빛 같은 팩션판타지 로맨스 《별에서 온 그대》 경쟁작을 압도하다



톱스타 김수현과 전지현의 환상적인 조합과 스타제작진의 의기투합으로 방송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던 《별에서 온 그대》(극본 박지은, 연출 장태유)가 2013년 12월 18일(수) 첫 방송에서 15.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높은 시청률로 경쟁작들을 크게 따돌리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1월 1일(수) 방송 5회 만에 22.3%를 기록하였다.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외계에서 온 남자와 톱여배우의 사랑이라는 판타지 요소에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과 흥미로운 전개를 더해 흡인력을 높이며 수목드라마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2013년 12월 16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가졌던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드라마본부 드라마3EP소속 장태유 차장대우는 “《별에서 온 그대》는 유쾌하고 발랄하며 달달한 스토리이며, 보통 로맨틱코미디보다 환타지 요소가 많아 액션신도 있고, 도민준의 과거 회상에서 사극과 같은 장면도 나오는 등 다양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로코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드라마의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이색적인 소재와 탄탄한 구성, 전지현과 김수현의 호연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는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다.

새 아침드라마 《나만의 당신》 대본 연습 현장 공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두 여자의 방》 후속인 새 아침드라마 《나만의 당신》(극본 마주희, 연출 김정민)이 이민영, 정성환, 송재희, 한다민 등 30여명의 제작진과 연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본 연습을 진행하였다. 2014년 1월 중 첫 방송되는 《나만의 당신》은 착하고 정직하게 자란 여성이 자신에게 직면한 끔찍한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통쾌하고 기승 짩한 이야기를 그려갈 예정이다.

《정글의 법칙 in 미크로네시아》 12월 20일(금) 방송 에메랄드 빛 태평양에서 펼쳐는 미스터리한 생존의 시작

매 시즌마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치열하고 기발한 생존방식을 보여주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 온 《정글의 법칙》이 지난 2013년 12월 20일(금) 11번째 시즌인 《정글의 법칙 in 미크로네시아》를 시작하였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콘셉트는 ‘미스터리 로’, 제작진은 사전 답사에서 미크로네시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나라라고 판단하여 병만족 스스로궁금증을 가지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미션을 제공하여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2013년 12월 17일(화) 개최된 《정글의 법칙 in 미크로네시아》 기자간담회에서 연출을 맡은 제작본부 예능 3CP소속 박미연PD는 “1년 반 정도 《정글의 법칙》에 몸담고 있다가 이번 시즌에서 첫 연출을 맡았다. 여자 PD로서 저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었는데, 좋은 분들을 모시고 촬영하여 만족스럽다. 생존지의 매력 뿐 아니라 현지의 미스터리한 역사를 콘셉트로 살린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좀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번 시즌의 성공을 자신했다.



《최화정의 파워타임》 신년특집 ‘2014 대세 스타 스페셜쇼’ 뜨거운 호응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은 1월 1일(수) 신년특집으로 텔런트 정우와 제국의 아이들 멤버 박형식을 초대했다. 정우와 박형식은 그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3년 각각 드라마와 예능, 뮤지컬 등에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특집은 ‘새해 첫날, 작년에 가장 운수대통했던 이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좋은 기운을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종영 후,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독점으로 출연하는 텔런트 정우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으며,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은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본인의 유행어였던 ‘데헷’을 이용한 ‘2014 대박나세요, 데헷!’ 코너를 DJ와 함께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청취자들의 질문과 ‘나의 가장 마지막 OOO’을 털어놓는 ‘Last Talk’, 즉문즉답 ‘있다 없다’ 등 다양한 코너로 풍성하게 꾸며져 청취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러브FM 2013년 12월 21일(토) 방송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다.갈.이. 특집》 제작진 후기

다문화 특집을 진행하고 나서...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연말특집으로 다문화 가족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와 좌담회 제작을 맡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 하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검은 피부의 불쌍한 공장 노동자,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을 만나 농촌에 거주하는 동남아 여성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마음의 벽을 조금이나마 낮추자는 것이 이번 특집의 주제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훌륭하게 정착한 다문화 가족을 주인공으로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주인공은 무주에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는 다문화 여성 3총사! 그리고 다문화 정규직 1호로 채용된 네팔인 박로이씨였다.

무주에서 만난 여성 3총사는 밝음 그 자체였다. 현지 한국인도 잘 모르는 무주의 역사와 관광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말은 조금 서툴렀지만 그녀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공부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귀를 사로잡았다.

한국말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각종 자격증에 꾸준히 도전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필리핀 출신 셀리씨는 무주군 다문화 여성들로 이루어진 밴드 ‘레인보우’ 활동도 하며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밝고 활동적인 주부였다. 그녀들의 꿈은 정규직화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펼쳐놓는 수다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뽕범함’이었다. 두 번째로 만난 박로이씨는 조근조근 말을 하는 네팔 출신의 남자였다. 인도 유학중 배낭여행 온 한국여성을 만나 한국에 정착했는데 5개 국어를 하는 델리대학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였다. 하지만 검은 피부의 그에게는 흔한 영어강사 자리 하나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기업은행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끝에 지금은 이태원 지점 일반 창구에서 정식 업무를 보고 있다. 실무를 익힌 다음 인도 지점 개설을 위한 전문가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을 피부색에 가려 못 볼 뻔했다. 그의 아내는 ‘동남아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에서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게끔 해야 한다. 당신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어달라’고 매일 격려했다고 한다.

좌담회에 출연한 핀란드 출신 따루는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주해서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고 이 소식에 한국인들이 분노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차별을 일삼고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이미 도래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외면과 무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포용이 필요할 때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내 소식

SBS 이용모 사장, 한국방송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한국방송협회는 2013년 12월 27일(금) 제 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용모 SBS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용모 회장은 취임사에서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상파 플랫폼을 지키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의 눈물〉 2013년 ‘올해의 한국방송작가상’ 수상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6회 한국방송작가상’ 교양 부문에 〈신년특집 SBS스페셜 - 학교의 눈물〉(연출:한재신 이하 학교의 눈물)을 집필한 신진주 작가가 선정되어, 지난 12월 18일(수)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작

가협회 선·후배 작가 동료들이 직접 선정하는 한국방송작가상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라디오 등 4개 장르에서 한 해를 빛낸 각 1인에게만 주어지는 뜻깊은 상이다. 〈생방송 세븐데이즈〉, 〈그것이 알고 싶다〉, 〈SBS스페셜〉 등 SBS 교양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신진주 작가는 〈학교의 눈물〉에서 보여준 섬세하고 깊이 있는 글, 구성과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그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아이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글꼴 전쟁〉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SBS의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글꼴 전쟁〉이 2013년 12월 17일(화)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2013년 10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글꼴 전쟁〉이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을 구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새로운 글꼴 개발을 통한 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한글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도본부 김수형 기자, ‘올해의 방송기자상’ 수상

보도본부 정치부 김수형 기자가 ‘취재파일 - 여당마저 부끄럽다. 윤진숙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로 2013년 12월 12일(목) 개최된 ‘2013 BJC 보도상 올해의 방송기자상’ (한국방송기자클럽 주관) 뉴미디어 부문을 수상하였다. 김수형 기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SBS-한국교육개발원 공동 인증 2013년 미래학교 시상식 개최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인증하는 ‘2013년 미래학교 시상식’이 2013년 12월 17일(화)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미래학교로는 경상북도 이산초등학교와 인천 영종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여자고등학교,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SBS 문화재단-이화여대 프런티어 저널리즘스쿨 공동운영 협약



SBS문화재단(이사장 윤세영)과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선익)는 12월 13일(금) 이화여자대 아령당에서 ‘이화여대·SBS문화재단 프런티어 저널리즘스쿨 공동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BS문화재단과 이화여대는 언론계 진출을 원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전액 장학생으로 기자와 시사, 교양 프로듀서가 되는데 필요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저널리즘스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비학

위 프로그램으로 설계돼, 이화여대 재학생뿐 아니라 타고 학생들에게도 개방되는 프런티어 저널리즘스쿨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언론학 교수들과 신문과 방송 현업의 저명기자와 프로듀서들이 모든 강의를 담당해 해외 유명 저널리즘스쿨에 뒤지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차세대 그룹 통합정보시스템 SBS WiSE 오픈



경영지원본부 ERP팀은 SBS 미디어그룹의 차세대 그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SBS WiSE)을 개발하여 2013년 12월 23일(월)에 오픈하였다. SBS WiSE는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에 비하여 표준준수, 보안강화 및 다양성과 편의성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설계 및 구축되었다. Web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향후 확장성을 높였으며 외부 접속시 사용하는 PKI 기능의 강화 및 사용자별 차별화된 정보 접근등을 통하여 정보 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SBS미디어그룹 13개사 직원들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성 있는 화면 구성과 더불어 메뉴서비스를 풀다운 형식으로 바꾸어 업무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즐겨찾기에서는 원하는 폴더를 생성하고 이동시킬 수 있으며 한번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탭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특히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은 Window 기반의 Internet Explorer에서만 접속 및 사용이 가능했으나, SBS WiSE는 다양한 브라우저와 단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3년 SBS 출입기자단 송년회 개최



편성전략본부 리스닝센터 PR팀은 2013년 12월 13일(금) 목동 방송회관 ‘Aimo e Nadia’에서 SBS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출입기자 40여명과 편성전략본부 박수언 리스닝센터장, 드라마본부 드라마IEP 문정수 부국장, 제작본부 교양3CP

박두선 부장, 라디오센터 라디오ICP 정태익 부장이 참석한 이번 송년회에서는 기자들의 투표를 거쳐 ‘2013년 올해의 SBS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참석한 기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출입기자와의 유대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SBS 프로그램으로 드라마 부문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예능 부문 〈런닝맨〉, 교양 부문 〈그것이 알고 싶다〉, 라디오 부문 〈두시탈출 컬투쇼〉가 선정되었다.

2014년 1분기 조회 실시 예정

SBS는 2014년부터 분기별로 조회를 실시한다. SBS 분기별 조회는 매 분기 첫 월(1, 4, 7, 10월) 첫째 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며, ‘SBS NOW’ 홍보영상, 시상식 및 사령장 수여, CEO 말씀, 사가 제창 순서로 진행된다. 2014년 제 1분기 조회는 신년 하례식을 겸하여 1월 7일(화) 오전 10시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하며, 2013년 하반기 작품상 등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SBS 사우회 김수용 신임 회장 임명



SBS 사우회 제2대 회장에 김수용씨가 선임 됐다. 사우회 회장 선임 추천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 신임 회장은 SBS 사우회 품격을 고양 시키기 위해 사우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 활동을 떠나가고 젊은 사우들의 사우회 참여를 위해 동호회 활동을 다양화 하는 등 따뜻한 사우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SBS 재직시 방송지원본부장, 편성본부장, 미디어넷 부회장, 목동 신사옥건설 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룹 소식

SBS ESPN - SBS funE 2014년 1월 채널 명 변경



엔터테인먼트 채널 SBS E!와 스포츠 채널 SBS ESPN이 SBS funE와 SBS스포츠로 새롭게 탄생한다. SBS E!와 SBS ESPN은 SBS funE, SBS Sports로 각각 채널 명을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SBS funE와 SBS Sports는 채널 명 변경과 함께,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춘 파워 콘텐츠 보유 채널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계획이다. SBS funE는 기존 엔터테인먼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유쾌함과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한 funE(퍼니)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SBS funE는 해외 유명 콘텐츠 전달이 아닌 경쟁력이 높은 '파워 콘텐츠' 창조에 더욱 큰 힘을 실을 계획이다. 향후에는 전략적 콘텐츠를 제작해 '펀(fun)'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는 각오다. SBS스포츠는 한국 최초의 스포츠채널의 이미지를 간직한 이름으로 돌아가, 스

포츠가 가진 즐거움을 극대화 시켜 중계로 전달한다. 오랜 기간의 중계 노하우를 쌓은 채널인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리소스를 활용해 원조 스포츠 채널의 면모를 강조할 예정이다. SBS E!와 SBS ESPN은 "두 채널의 동시 채널 명 변경에 맞춰 그룹의 경쟁력 제고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사회공헌 송년회 실시



SBS 미디어홀딩스는 2013년 12월 20일(금) 김진원 사장과 임직원 30명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외계층을 찾아가 연탄 1,800장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은 추위와 눈을 맞으며 연탄을 배달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보람을 느끼며 훈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따뜻한 마음을 나눠 온 SBS 방송의 얼굴들,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알리다

SBS의 보도,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넘치는 끼와 재치로 프로그램을 빛내며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SBS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 밖에서도 소외된 이웃들과 훈훈한 사랑을 나누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기환 아나운서는 2012년부터 국민연금 홍보대사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아프리카 브룬디에 산모병동 건립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사보 980호 소개)

박선영 아나운서는 2012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며, 2012년 출연료 1000만원을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하였고, 2014년 출연료 1000 만원도 기부할 것을 약속하였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내년에도 보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미선 아나운서는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매년 출연료 1000만원을 기부해왔다. 현재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에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박은경 차장대우는 2012년부터 지역난방공사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며, 2013년 출연료 700만원을 '희망TV SBS'에 기부한 바 있다.

정석문 차장대우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관련 행사 진행과 함께 홍보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또 여자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여우회'는 8월 14일(수) 전국 57개 국군장병들에게 상영할 시 낭송 영상제작에 참여해 재능기부를 하였고, 서울 망원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과 책읽기, 미술 활동을 하였다.(사보 988호 소개)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6일(수)에는 망원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SBS로 초청해서 견학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어린이

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그 외에도 김주우 아나운서는 4월 25일(목) 서울시 관광협회의 '미국인 지도자 태권도 순례투어'에서 한국어 강좌 봉사를 하였고, 김주희 아나운서는 10월 31일(목) 양초제작 판매수익금을 성가정입양원에 기부한데 이어, 12월 3일(화) 개최한 '이야기가 있는 사진전 - In Dreams' (사보 994호 소개) 수익금도 기부 할 예정이다.

이윤아 아나운서는 직장인들의 커뮤니티에서 동네쉼터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만들고 마음을 나누는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방송을 통해 SBS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 선행을 쌓으며 사회공헌활동에 힘써온 아나운서팀 사우들의 2014년은 한층 의미 있는 한 해로 다가올 것이다.



사우기고 1 | 라디오센터 라디오지원팀 박종필 팀장

120년 전 갑오년

당시 유행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던진다

가보세 가보세(甲午年, 1894년, 2014년)

을미적 을미적(乙未年, 1895년, 2015년)

병신되면 못가리(丙申年, 1896년, 2016년)

위의 이야기는 근세의 조선말기인 1894년 갑오년 전후에 우리 백성들의 비전과 우려가 혼재하던 시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당시의 소위 유행어 중

의 한 구절이다.

이는 정부와 백성은 혁신과 개혁으로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해 내부적으로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외부적으로는 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전략과 대응으로 자존, 자립의 형태로 희망의 미래를 지향하지는 뜻으로 애절한 갈망이 담긴 여론이었다.

이 시절 조선반도는 일본, 러시아, 청나라 등 외세의 각축장으로 하루하루가 혼돈의 시기였으며 한편으로 갑오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해 무능하고 부조리한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저항한 혁명적 성격의 농민운동이 일어나 인팍으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120여 년 전 내우외환의 그 시절과 지금의 형편은 국가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처한 방송환경과도 너무나 흡사한 모양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을 또 다시 맞이하면서 오늘의 현실이 을미적을미적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을 새겨 보고자 한다.

사우 기고 2 | 라디오센터 라디오2CP소속 김훈중 차장대우

2013 SBS 송년음악회를 마치고... 2014년을 맞으며

카니발 아무르 - SBS 빅밴드 (VOCAL : 이운아)

라디오 PD들에게 송년 음악회란?

그 어느 공연보다 게스트 가수 섭외가 뽕뽕해야 하는 무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무대!!

SBS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

12월의 기적 - EXO

라디오PD들은 해마다 연말이면 송년음악회 준비로 바빠진다. 특히 2013년 송년음악회는 우여곡절 끝에 가수 섭외가 뒤늦게 시작되었다. 이제와 고백하건대 정말 많이 초조했다. 왜냐하면, 송년 음악회를 통해 SBS에 다니는 멋진 아빠 · 멋진 엄마가 되어야 하는 수많은 사우들의 눈빛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모두 알 것이다. 자기 아이에게는 모두 슈퍼맨 ·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을. 아이들이 진짜 열광할 만한 가수들이 최소 몇 팀 정도는 출연해줘야 사우 여러분께 송구스럽지 않을 것 같아 무척이나 마음 졸였다.

그런데, 걱정도 잠시!!!

너무나 다행히도 '12월의 기적'이 일어났다. EXO, 샤이니, 미쓰에이, 악동뮤지션 등 라디오 제작진 모두가 1순위로 원했지만, 차마 모두 다 섭외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팀들의 스케줄이 의외로 일찌감치 확정됐기 때문이다.

동반자 - 태진아

섭외가 순조롭게 풀리면서 또 하나의 행운이 찾아들어왔다. 안형준 경영지원팀장님, 김정태 차장님을 비롯한 경영지원팀 사우들이 열과 성을 다해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라디오PD들은 오롯이 무대의 완성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송년 음악회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다보니 참 많은 사우들을 만나게 되었다. 미디어크리에이트 신입 김건호 사우를 비롯해 SBS빅밴드에 참여한 선후배님들 등 타부서 사우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덕분에 지난 10여년 근무한 것 보다, 지난 한 달간 더 많은 사우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흐뭇했다.

크레센도 - 악동뮤지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년음악회가 완벽했던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미진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2014년에는 또 누군가가 올해보다 더 멋진 축제의 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크레센도, 한 걸음씩 송년음악회는 더 멋진 무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2014년은 라디오센터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해가 될 것이다. 103.5MHZ LOVE FM이 전국화 되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라디오센터 직원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셈이다. 라디오 전 채널 부동의 1위 POWER FM과 더불어 2014년에는 LOVE FM까지 전국적으로 더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바야흐로 스마트 전성시대이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 워치, 스마트 폭탄, 스마트 컨슈머에서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보안관까지, 무언가 똑똑해 보이는 것에는 '스마트'란 단어가 다 붙어있다.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보안관의 의미까지 안다면 시사상식 100점 만점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데이터방송을 지난 10여 년간 송출하였다. 새로운 Cash-cow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도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는 데이터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대부분 데이터방송을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심지어 가전사에서 대부분 TV 모델에서 데이터방송 표시하는 기능을 빼고 출시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가전사와는 데이터방송을 매개로 그렇게 '서로 죽고 못사는' 사이였는데, 데이터방송의 가장 큰 단점은 대부분 콘텐츠가 단방향 서비스라는 점이다. 단방향 서비스를 가지고는, 원하는 정보가 순식간에 튀어 나와야 하는 성미 급한 한국인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애당초 '넘사벽'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스마트TV에 적합한 양방향 서비스를 구상한 것이 OHTV이다. OHTV는 'Open Hybrid TV'의 약자로 Channel Bound 서비스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심중팔구 돌 날아올 것이다. 그럼 돌 맞기 전에 차분하게 살펴봅시다. Open이라 함은 특정 TV모델이 아닌 범용적인 스마트TV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연재기사 | '우리만 아는 방송 기술 이야기' ⑪

OHTV, 지상파의 스마트 버전



Hybrid란 의미는 방송망과 통신망을 함께 이용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채널 바운드 서비스란 채널 전환 시에 어플이 시작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널을 SBS로 돌리면 SBS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K본부 채널에 가면 K본부에서 만든 어플이 작동된다. 이 기능이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마트TV 대부분의 어플들은 스마트폰에서처럼 시청자가 Click을 해야 실행이 되는데 비하여, 채널이 바뀌면 해당 방송사의 어플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청자의 인지도가 높게 형성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SBS에서 제공한 OHTV 어플에는 VoD, AEPG(Advanced EPG), 실시간 참여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VoD 서비스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pooq서비스에 연결되어 방대한 지상파 Vo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AEPG는 SBS

뿐만 아니라 SBS 식구들의 일주일 치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제공한다. SBS, SBS Sports, SBS Plus, SBS Golf, SBS MTV, SBS funE, SBS CNBC 등. 역시 우리가 남이기~. 시청자 참여에는 방송 관련 SNS, 퀴즈 및 투표 등의 참여형 콘텐츠가 서비스 된다.

SBS는 TV수신기와의 적용시험을 거쳐 지난 12월 27일부터 OHTV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2013년 이후 출시된 삼성이나 LG TV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경우, TV Tuner에서 선택된 채널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각 지상파 방송사별 어플이 바로 실행될 수 있다. 유료방송을 통해 SBS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TV가 화면의 우상단 SBS Logo를 인식하거나 SBS 워터마크 인식을 통해서 SBS 채널임을 인지하여 SBS 어플이 동작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TV 전자상거래인 T-Commerce 기능과 스마트폰을 OHTV의 부가정보 화면으로 활용하는 2nd Screen 기능 등을 올해에 추가할 예정이다.

지상파 광고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적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낚싯대 여러 개를 담그는 것이 하나 담그는 것보다는 물고기들 입질이 많지 않을까? OHTV 서비스가 대박 나갈 사우 여러분의 응원 바랍니다. Oh~ Happy TV & Happy New-Year!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개발팀 김성환

2014년 2월 27일(목) '사보 1000호'가 발행됩니다.

이에 1000호 특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축하메시지를 접수합니다.

● 설문조사 질문사항

1. SBS 사보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2. 앞으로 사보에 대해 바라는 점이나 의견은 무엇인가요?

PR팀 사보담당자(서희정)에게 2월 21일(금)까지 사내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시지는 글이나 사진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3년 SBS미디어그룹 총무식



2013년 12월 31일(화) 오전 10시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2013년 SBS미디어그룹 총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총무식에서는 SBS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 비전실천가치 TCDW(Trustworthy Creative Diverse Wholesome)의 사례와 함께 '2013년 SBS 10대 뉴스'와 '2014 SBS 대기획'을 영상시사 하였으며 SBS미디어그룹의 'One SBS, Winning SBS'의 경영방침과 2015년까지 그룹 전략방향을 콘텐츠 제작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인 성장 동력 발굴로 지속 성장 기반 구축으로 하고 2014년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로 콘텐츠 제작 혁신, 플랫폼 경쟁력 강화, 고객 중심 신 성장 추진, 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을 소개하였다.이어서 SBS희망내일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년 SBS 희망나눔대상' 시상식에서는 팀 부문에 SBS뉴스텍 영상제작팀이, 개인 부문에 제작본부 예능2CP소속 박승민 차장대우와 SBS0트텍 아트2팀 김지영 사수가 수상하였다. 윤석민 SBS미디어그룹 부회장은 송구영신 인사말에서 2013년 SBS가 거둔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개최되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빅이벤트를 통해 SBS의 방송역량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한편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새로운 미디어에코시스템을 선도하고자 다짐하였고, 계열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였다.

2013 SBS 10 대 뉴스

1 One SBS, Winning SBS 조직개편, 협업

내부 유기적인 조직개편, 공간혁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였다.

2 SBS 신년 대기획 연중캠페인 <착한 성장 대한민국> <리더의 조건>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위해 SBS가 기획한 3부작 토론프로그램 <착한 성장 대한민국>이 1월 4일(금), 11일(금), 18일(금) 방송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고, 1월 6일(일), 2월 24일(일)에는 신년특집다큐멘터리 <리더의 조건>을 방송하여 SBS 연중캠페인 <착한 성장 대한민국>의 의미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3 런닝맨 : 2월 17일~24일 방송분 마카오, 베트남 아시아 레이스 특집 <런닝맨 in 아시아>

SBS가 2013년 신년대기획 '착한 성장 대한민국' 연중캠페인 '한류 예능 콘텐츠, SBS가 만들어가다'의 '런닝맨 in 아시아'로 기획,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현지 팬들과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한류 예능의 위상을 높였다.

4 서울디지털포럼 (SDF) 2013 : 5월 2일(목)~3일(금) 개최

2013년 10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 포럼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2013'이 '초(超) 협력 내일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제 2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있었던 정보문화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5 '2013 희망 TV SBS'

: 5월 10일(금)~11일(토) 상반기, 11월 15일(금)~16일(토) 하반기 실시 'SBS 미디어그룹 UNGC 가치대상 수상'

나눔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SBS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2013 희망TV SBS>가 상반기 5월 10일(금)~11일(토), 하반기 창사특집으로 11월 15일(금)~16일(토) 진행하며 다양한 행사로 나눔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SBS는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11월 12일(화) 개최된 UNGC(유엔 글로벌 콤팩트) 행사인 'Global CSR Conference 2013'에서 진행한 UNGC가치 대상(UNGC Value Awards) 시상식에서 미디어 그룹 최초로 Best Practice상 6개 부문 중 'MDGs(새천년개발 목표)부문'을 수상하였다.

6 SBS 드라마 스페셜 몰입도 100%, 거침없는 상승세로 안방극장 초토화

: 법정판타지 로맨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로코미호러 <주군의 태양>, 걱정 하이틴 로맨스 <상속자들>

6월 5일(수) 첫 방송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이색적인 소재와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방송 2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작들을 크게 따돌리고 수목드라마의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으로 8월 7일(수)부터 방송된 <주군의 태양>도 첫 방송부터 경쟁사 드라마를 제압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고, 10월 9일(수) 첫 방송된 <상속자들>도 초호화 캐스팅과 스타 제작진의 만남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동시간대 1위로 종영하였다.

7 SBS 라디오 전성시대 : 라디오 채널 청취율 1위 <파워 FM> 부동의 청취율 1위 <두 시 탈출 킬투쇼>

파워FM이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5월 청취율 조사 결과, 라디오 채널 청취율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두 시 탈출 킬투쇼>는 2006년 5월 1일(월) 첫 방송된 이후 7년간 라디오 전체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청취율 10%를 돌파했고, 2013년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18.3%라는 이례적인 청취율을 기록하였다.

8 한국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 아이콘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3> : 차원이 다른 국내 최고의 오디션! 더욱 강렬하고, 특별하게 돌아온 시즌3

박지민, 이하이, 악동뮤지션 등 수많은 천재 뮤지션을 발굴해낸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3>(이하 K팝스타3)가 돌아왔다. '변화'와 '공정한 경쟁'을 새 키워드로 내세운 <K팝스타3>는 가수 유희열을 심사위원으로 합류시켜 심사의 스펙트럼을 넓혔고, 뛰어난 실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겸비한 출연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9 N Screen 서비스 No.1 poog : 콘텐츠 서비스 영역 확대로 OTT서비스의 선도적 입지 마련

2013 ISU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김연아 채널> 신규 콘텐츠, <TV 타임머신> 등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에 성공하며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다.

10 SBS 프로그램의 쾌거, 수상소식 봇물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상 소식과 함께 호평을 받은 SBS

SBS 창사특집 대기획 4부작 <최후의 제국>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제 25회 한국PD대상' 시사다큐부문 수상 및 '제 2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과 '제5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장경수 차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미래한국리포트 -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은 '제7회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대상을 받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박혜련 작가가 대통령표창 받았고, '제7회 미디어어워드'에서 드라마부문 우수상을 받았다.